

기독교학술원장 김영한 박사의 ‘역사적 예수 연구 시리즈’

마리말



기독교학술원장,
샬롬나비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나사렛 예수가 행하신 설교들 가운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내용이 바로 마태와 누가가 그들의 복음서에 기록한 산상설교이다. 이것은 나사렛 예수가 전파한 복음의 핵심이요 하나님 나라의 윤리적 현장이다. 예수는 산상설교에서 그의 역사적 사역 가운데서 다가오는 하나님 통치를 기대하는 신자들의 삶의 원리를 설명해주고 있다.

I.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

산이나 평지는 하나님의 가까이 계신 장소이며 하나님의 계시의 장소다. 예수는 가버나움 호수변의 산(팔복산)에서 무리를 앉도록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마 5:1-2) 8복(福)(The Beatitudes)에 관한 유명한 산상설교를 하신다. 마태는 그의 복음서 5장~7장에서, 누가는 6장 20절~49절에서 예수의 산상설교를 기록하고 있다. 마태는 예수의 여덟가지 복((The Beatitudes)선언을 마음이 청빈하고 경건한 자가 받는 복으로 특징짓고 있는데(마 5:2-12) 반해서, 누가는 사회적인 곤궁 속의 민중들의 적나라한 궁핍을 더욱 반영하며 그한 궁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다(눅 6:20-26).

산상설교의 선포는 선포하시는 자의 신비와 권위에서 드러난다. 예수 선포의 깊은 주제는 예수 자신의 신비다. 그것은 하나님 아들로서의 신비다. 하나님은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신다. 아들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이미 다가왔으며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

산상설교에서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실현하기 위하여 신자가 살아야 할 윤리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는 이미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 시민의 태도와 삶의 방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예수는 신자들에게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현장을 반포하신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제 예수의 설교와 치유의 사역 속에서 실현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님의 통치는 이제 신자의 삶 속에서도 수용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산상설교의 신자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제자들 안에서 벌어(發芽)된 모습으로 현재해 있다. 산상설교는 이 세상에 침입해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에 직면하여 신자들에게 요청되는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새로운 삶의 윤리를 가진 자들이다. 이 윤리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자들이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자들은 그 삶과 사고 방식이 새로워진다. 중생한 자의 삶이란 그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는 것이다.

산상설교는 이러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사회개혁을 위한 원리를 제시해주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회 개혁의 원리는 오히려 영적인 가난함과 자기 비울에서 기인한다. 진정한 사회개혁이란 사회의 정의로운 개혁을 제도적으로 수행하는 자들의 정신의 개혁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가난하고 청결한 자들의 공동체에서 비로소 진정한 사회개혁은 이루어진다. 공산주의자들의 1917년 불세비키 혁명이 역사상 72년간의 실험으로 좌초되고 역사에서 사라지게 된 것은 인간의 내면적 욕심을 제거시키지 않고 외면적으로 강압적으로 제도 개혁만을 시도한 데 있기 때문이다.

II. 팔복(八福) 메시지 : 참 복의 선언

1. 팔복선언

예수는 산상설교에서 8복(八福, The Beatitudes)을 선언하고 있다. 예수는 이

러한 팔복 선언을 듣는 사람들이 이에 상응하는 삶과 태도를 가지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한다. 마태는 예수의 축복선언을 유대의 청빈자의 경건 정신의 관점에서 기록했으며 그 외에 네가지가 추가되었다.

“심령이 가난한 자(the poor in spirit)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마 5:3). 천국은 그 마음이 가난한 자들(the poor)의 것이다. 천국은 부자나 권리자인 자의 것이다. 부자나 권리자는 그 마음이 교만하고 욕심으로 가득 찰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이나 바리새인 니고데모, 백부장 고넬료처럼 부와 권력을 가졌으나 천국 복음을 향하여 그 마음이 열리고 그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있다. 이들은 자신의 소유를 남을 위한 위탁물로 여기고 봉사한다. 이들은 소유하고 있으나 소유하지 않은 자처럼 사는 자들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종말론적 삶의 태도를 지닌 자들이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

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고전 7:31). 교회는 욕심으로 부유한 자들이나 권력 추구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욕심과 권력 추구를 배설물로 여기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공동체다. 하나님 나라는 겸손하고 겸허한 자들이 소유한다. 욕심을 떠난 자들에게 천국은 다가온다.

“애통하는 자(the mourning)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마 5:4).

예수의 이 메시지는 구약 선지자 에스겔의 메시지를 연상시킨다: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겔 9:4).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은 불의한 일로 인해 탄식하고 애통하는 자로 하나님의 처벌 심판을 모면한다. 진리 때문에 애통하는 자(the mourning)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자신의 허물을 알고 뉘우치는 자에게 천국은 다가온다. 자신의 허물을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 세례자 요한은 외쳤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마 3:2). 예수도 선포하였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마 4:17). 회개하는 자는 애통하는 자이며,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기의 허물을 뉘우치고 자기의 삶을 새롭게 하는 자이다.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과 부활을 믿는 것이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 종교 개혁자 루터와 칼빈, 낙스 등 종교개혁자들과 영국의 청교도들과 감리교인들은 이 신칭의의 도리를 발견하였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그의 제자됨의 길을 가는 자이다. 이들은 자제적인 여론과 사회적 인습과 관례와 권력의 독재 앞에 굽종하지 않고 거기에 저항하며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자들이다. 의(righteousness)란 오늘날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알카에다,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전사(戰士, 聖戰) 등 처럼 인간이 설정한 성전(zihad, 殘忍)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의란 피의 복수가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를 사람을 가운데서 퍼뜨리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자신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를 통하여 너희를 훈련하시는 것 같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후 5:20). 하나님과 평화를 가진 자들은 이웃과의 평화를 가질 수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the pure in heart)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마 5:8).

그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성만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의지만으로는 하나님만을 볼 수 없다. 이성과 의지의 바탕이 되는 영혼의 정서적 바탕인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성직자에게 와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 “그대의 마음이 창을 어떤지 하느냐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을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자신을 보여주신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때 자신의 조건을 말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때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시 24:3-5) 마음이 청결한 자는 손이 깨끗하며,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다. 자신과 이웃과 공동체에 대한 정직과 진실과 의로움의 관계를 가진 자를 말한다.

“화평하게 하는 자(the peacemakers)

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 5:9).

다툼 있는 곳에 평화를 심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 예수는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를 사람을 가운데서 퍼뜨리는 자는 복이 있다: “우

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자신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를 통하여 너희를 훈련하시는 것 같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후 5:20). 하나님과 평화를 가진 자들은 이웃과의 평화를 가질 수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those being persecuted)는 복이 있나니 천국

이 그들의 것임이라”(마 5:10).

역사의 각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악의 세력이 있다. 의로운 자는 이러한 세력에 대항하면서 박해를 받으면서 하시던처럼 하나님의 의를 지

도중에서 땅의 개념은 깊이와 넓이를 더 해갔다. 땅이란 개인의 소유에서 시작하여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간다. 온유하고 소박한 사람들이 땅을 개간하여 씨를 뿐 그리고 수확하고 고랑을 나누며 계속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다. 이 경작지에서 온유하고 소박한 사람들이 폭력을 쓰는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아 남는다. 그러나 역사에 이르러 땅의 개념은 전세계적으로 확대된다. 평화의 왕이 다스리는 영토는 민족국가가 아니라 온 세계다. 그 지경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른다(스 9:10). 이 표현의 배후에는 땅은 하나님의 둑근 판으로 그 둘레에는 많은 물이 감돌고 있다라는 고대의 세계관이 자리한다. 온유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의에 주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마 5:6).

구약 에서 의의(tzedakah, righteousness)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충성이다. 충성이란 하나님이 가르치신 바른 길을 지키는 것이다(시 1:1-2; 렘 17:5-8). 그 중심에는 신령계이다. 하나님의 공의를 간절히 추구하는 자는 그의 삶 속에 정의가 실현됨을 볼 것이다. 신약에서 의(θεικαιοσην, righteousness)란 유통과 성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 세례자 요한은 외쳤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마 3:2). 예수도 선포하였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마 4:17). 회개하는 자는 애통하는 자이며,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기의 허물을 뉘우치고 자기의 삶을 새롭게 하는 자이다.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과 부활을 믿는 것이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 종교 개혁자 루터와 칼빈, 낙스 등 종교개혁자들과 영국의 청교도들과 감리교인들은 이 신칭의의 도리를 발견하였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그의 제자됨의 길을 가는 자이다. 이들은 자제적인 여론과 사회적 인습과 관례와 권력의 독재 앞에 굽종하지 않고 거기에 저항하며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자들이다. 의(righteousness)란 오늘날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알카에다,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전사(戰士, 聖戰) 등 처럼 인간이 설정한 성전(zihad, 殘忍)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의란 피의 복수가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를 사람을 가운데서 퍼뜨리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자신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를 통하여 너희를 훈련하시는 것 같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후 5:20). 하나님과 평화를 가진 자들은 이웃과의 평화를 가질 수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the peacemakers)

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 5:9).

다툼 있는 곳에 평화를 심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 예수는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를 사람을 가운데서 퍼뜨리는 자는 복이 있다: “우

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자신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를 통하여 너희를 훈련하시는 것 같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후 5:20). 하나님과 평화를 가진 자들은 이웃과의 평화를 가질 수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those being persecuted)는 복이 있나니 천국

이 그들의 것임이라”(마 5:10).

역사의 각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악의 세력이 있다. 의로운 자는 이러한 세력에 대항하면서 박해를 받으면서 하시던처럼 하나님의 의를 지

어서에 다음과 같이 괴력하였다: “하나님은 고통을 당하실 수 없다. 그러나 그분은 고통을 함께 나누실 수 있는 분이다”(impossibilitas est Deus, sed non impossibilis). 절대적인 초월적인 이념의 세계 속에 있는 혈족적인 신은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자이나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그 초월성과 거룩성을 훼손하지 않으시면서도 그의 아들의 성육신과 심자가 고난 속에서 고통을 느끼고 인간의 아픔에 동참하는 공감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산상설교가 증언하는 하나님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the pure in heart)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마 5:8).

그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성만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의지만으로는 하나님만을 볼 수 없다. 이성과 의지의 바탕이 되는 영혼의 정서적 바탕인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성직자에게 와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 “그대의 마음이 창을 어떤지 하느냐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을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자신을 보여주신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때 자신의 조건을 말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때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시 24:3-5) 마음이 깨끗하며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다. 자신과 이웃과 공동체에 대한 정직과 진실과 의로움의 관계를 가진 자를 말한다.

“화평하게 하는 자(the peacemakers)

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 5:9).

다툼 있는 곳에 평화를 심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 예수는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를 사람을 가운데서 퍼뜨리는 자는 복이 있다: “우

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자신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를 통하여 너희를 훈련하시는 것 같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후 5:20). 하나님과 평화를 가진 자들은 이웃과의 평화를 가질 수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those being persecuted)는 복이 있나니 천국

이 그들의 것임이라”(마 5:10).

역사의 각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악의 세력이 있다. 의로운 자는 이러한 세력에 대항하면서 박해를 받으면서 하시던처럼 하나님의 의를 지

기는 자다. 의를 위하여(because of righteousness) 박해받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가 있다고 예수는 말씀하신다. 주기철, 손양원, 한상동 목사는 일제의 신사참배 요구에 저항하다 옥에 갇혔고, 주기철은 순교하고 손양원과 한상동은 옥고를 치루는 고통을 당하였다. 북한의 공산당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처형되고 감옥에 갇히고 복음을 위하여 고통을 당했다. 복음과 의(義) 때문에 박해와 어려움을 받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금을 받게 될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for the sake of me)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마 5:11).

예수 이를 때문에 땅박과 박해를 받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있다. 예수 자신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다. 역사적으로 신앙의 선조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옥을 당하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들었다. 한 때 복음의 성지였던 평양과 북한 지역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박해당하고 옥을 당하고 감옥에서 고문받고 순교 당하는 자들이 있다. 주기철 목사는 신사참배를 거절했다고 일제에 굴복한 당시 한국교회 어옹노회에 의하여 신정현 교회 목사직에서 해임당하고 그 가족들도 목사관에서 쫓겨나는 박해를 당하였다. 손양원 목사도 6.25 전쟁 시 애교원의 가족들을 떠나지 않고 돌봄으로써 공산당에 의하여 피살당함으로써 순교하였다. 오늘날도 동남아시아 헌교권과 이슬람권(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복음전도를 하거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your reward)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마 5:12).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질 것이다. 주기철 목사와 그 가족들은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존경받고 있으며 천국에서 순교자들로서 영원한 영광의 상급을 누릴 것이다. 주기철 목사는 신사참배를 거절하면서 당한 고문과 옥고와 순교로 인해 천국에서 영광의 상급이 를 것이다. 손양원 목사도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사랑의 원자탄으로 존경받고 있으며 천국에서 영원한 순교자의 영광과 상급을 누릴 것이다. 구약 선지자부터 신약의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카타콤의 선자들, 종교개혁 때 개신교 선지자들, 영국의 청교도들, 오늘날 무슬림 국가에서의 기독교인과 북한에서의 지하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질 것이다.(계속)

“인간의 마음은 늘 휘청거리니 그 중심을 단단히 붙잡아야 한다” —《심경》첫 구절 중에서

다산 정약용, 퇴계 이황, 정조 이산… 그들은 왜 마지막까지 《심경》을 읽었을까?

</